

현장과 시각

관현악단장 무혐의, 그 후



김미은

문화생활부 차장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역시 관객의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오는 '무대'였다. 흥겨운 태평소 시나위 연주에 웃어든 관객들의 추임새에 단원들의 어깨도 들쭉였다.

지난달 28일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린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하 국악관현악단)의 올 첫 공연은 40여명 단원들에게 '의미 있는' 무대였다.

최근까지 국악관현악단은 전임 단장의 '단원 채용 급물 수수' 관련 수사로 만신창이 상태였다. 4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 전임 단장은 공연 며칠 전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후유증은 컸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단장과 단원들은 경찰과 검찰에 불려다녔고 특히 '의혹'을 받았던 신입 단원들은 가슴앓이를 해야 했다.

무엇보다 전임 단장의 고초는 컸다. 무혐의 소식을 듣고 기자들을 만난 그는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입을 뗐다. 한번 떨어진 자신의 명예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막막하며 좌절해했고, 무엇보다 단원들과 단체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연습을 계속하며 공연을 준비했던 단원들에게 무혐의 소식과 첫 번째 무대는 어끘 뻘이었던 긴 터널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이었을지 모른다.

물론 현재 광주문예회관측이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올린 단원의 징계 절차를 진행중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단원들간에 '백'이 생기는 등 '안락한' 해결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결국 자신들이 설 곳은 '무대'라는 사실을 더 가슴에 새겼을 것이다.

국악계에 불명예를 안긴 이번 사건의 배경을 놓고 많은 이야기가 떠돌지만 단장 '자리'를 둘러싼 싸움이라는 의견을 내놓는 국악인들이 많다. 사실, 철저하게 도제식 교육이 이뤄지는 국악계의 파벌 싸움이 유독 심하긴 하지만 지역 문화계에서 '상생(相生)'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각종 인사가 있을 때면 어김 없이 상대방을 핏뜯는 이야기가 난무하고, 문화계의 중대사를 논할 때도 제대로 된 의견 개진 대신 내편, 내편에 따라 움직이는 게 지역 문화계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정치판보다 더 '시끄러운 동네'가 문화판이라는 악평을 하기도 한다.

북핵 6자회담 미국과 북한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오는 4월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회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이 성사된다면 김 부상이 자카르타까지 가서 힐 차관보와 만나는 점에서 핵 프로그램 신고와 관련한 북한측 입장이 결정됐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북핵 현안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2일 "두 사람의 자카르타 회동 가능성이 매우

미술품 구입 자금 출처 추궁

삼성특검, 홍라희씨 조사...이건희 회장 이르면 주말 소환

삼성 특검팀이 2일 홍라희 삼성 리움미술관장을 특검 사무실로 출석시켜 조사함에 따라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견희 회장의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중 내 비자금으로 고가의 그림들을 산 의혹을 받고 있는 홍씨는 미술품 구매 자금 출처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

◇그림 산 돈, 출처는=홍씨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의 피고발인이었는데도 검찰에 소환되지 않다가 이날 수사기관에 처음으로 출석하게 된 것은 미술품 관련 의혹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그중 내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2002~2003년 서미갤러리와 국제갤러리 등을 통해 해외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고가의 미

술품들을 사들이는 데 쓰였다는 의혹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림을 샀던 홍씨를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 의혹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려면 미술품 구매에 사용된 돈이 계열사 등에서 빼돌려진 공금이라는 점이 밝혀져야 하므로 특검팀은 홍씨에게 누구 돈으로 그림을 샀는지를 증점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비자금이 일부라도 그림 구매에 사용된 점이 밝혀지면 '공금 유용'에 동참한 홍씨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 된다. 그러나 미술품을 산 돈이 이견희 회장의 개인 돈으로 밝혀지면 홍씨도 법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난다.

◇이견희 회장 소환 임박=비자금 조성

과 불법 경영권 승계, 정·관계 로비라는 3대 의혹을 수사해 온 특검팀은 대부분의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달 29일까지 수사기한이지만 마지막 10여일이 수사결과 정리와 보고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 회장은 이르면 이번 주말께, 늦어도 내주 중으로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3대 의혹 전반에 걸쳐 이 회장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에버랜드 사건에서 이 회사 지분이 이재용 전무에게 할값에 넘어가는 과정들이 회장이 미리 알았는지, 전략기획실 등에 지시를 했는지 등을 직접 추궁하게 된다.

연합뉴스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이 2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한남동 조준용 삼성특검 사무실로 출두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北-美 핵신고 의견 접근? 힐-김계관 4일께 자카르타 회동

북핵 6자회담 미국과 북한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오는 4월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회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이 성사된다면 김 부상이 자카르타까지 가서 힐 차관보와 만나는 점에서 핵 프로그램 신고와 관련한 북한측 입장이 결정됐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북핵 현안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2일 "두 사람의 자카르타 회동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소식통은 힐-김계관 회동 여부에 대해 "노 코멘트"라면서도 "김계관 부상이 나온다면 이는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북한측은 힐 차관보가 1일 서울에 도착한 뒤 자카르타 회동에 대한 입장을 미측에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힐 차관보는 이날 오전 외교부 당국자들과의 협의가 끝난 뒤 핵 프로그램 신고와 관련, "북한으로부터 2~3일 내에

신고문서에 대해 새로운 것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네바 북미회담 이후 신고문서에 대해 차이가 좁혀졌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힐-김계관 회동에서 북한이 플루토늄 뿐 아니라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 핵협력 등 세계의 정상급 지도자 50여명이 참석하는 나토 사상 최대 규모의 행사다.

이런 회담에선 회원국 확장, 아프가니스탄 파병, 러시아와의 관계개선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 정점 현안을 놓고 회원국 간 입장이 갈리고 있어 이를 어떻게 조율할 지 주목된다.

◇신규 회원국 가입=부시 대통령은 동맹국 정상들에게 크로아티아, 알

연합뉴스

중 올림픽 앞두고 사면초가

美의회 개막식 참석 금지 법안 추진

중국이 국운을 걸고 준비중인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4개월 앞두고 국내에 내재됐던 논란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베이징 올림픽을 밝혀줄 성화가 1일 함난한 여정을 예고하며 130일간의 국내외 봉송길에 오른 가운데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티베트 자치구의 시위 사태의 불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국내외에서 더욱 거세질 조짐이다.

미 의회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등 중국에 대한 국제여론이 악화되고 있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도 1일 중국 정부에 항거하는 시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됐다.

중국 지도부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걸림돌이 되는 암초가 사방에 널려 있다는 위기 인식아래 올림픽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선전전적으로 외국 언론과 인권단체의 공세에 맞서는 한편 준 군사조직인 66만명의 무장 경찰에 동원령을 내렸다.

또 중국이 올림픽 개최전이나 개최 기간에 시위, 테러 등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준 군사조직인 무장경찰에 동원령을 내렸다고 인민무경보가 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北 핵탄두 탄도미사일 계속 개발”

美국방부 국방 의회 청문회

북한은 핵탄두 장착능력을 지닌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개발을 계속하고 있지만 미국의 북한 미사일 방어능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미 군사당국자들이 1일(현지 시간) 밝혔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의 헨리 오버링 국장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전략무력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수출 활동은 여전히 특별한 우려의 대상”이라며 “북한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탄(ICBM)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버링 국장은 이와 함께 북한이 추진 중인 핵무기개발 프로그램 때문에 ICBM 개발은 미국과 우방들에게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이 신형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함으로써 “보다 정밀하고, 기동성있는” 군사력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마이클 메이플스 미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지난 2월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북한이 지난 2006년 7월 시험 발사한 대포동 2호 중거리 미사일과,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조한 중거리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나토 정상회의 개막...회원국 확대 쟁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2일(현지시간)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막을 올린다.

4일까지 3일간 계속되는 이번 회의는 나토 26개 회원국 정상외에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등 세계의 정상급 지도자 50여명이 참석하는 나토 사상 최대 규모의 행사다.

이번 회담에선 회원국 확장, 아프가니스탄 파병, 러시아와의 관계개선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 정점 현안을 놓고 회원국 간 입장이 갈리고 있어 이를 어떻게 조율할 지 주목된다.

◇신규 회원국 가입=부시 대통령은 동맹국 정상들에게 크로아티아, 알

바니아, 마케도니아 등 발칸 3국을 이번 회의에 신규 회원국으로 초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지원 확대=단골메뉴인 아프간 지원확대 문제에 대해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병력과 장비를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캐나다는 이번 정상회의에 앞서 아프간 남부 지역에 병력 증파가 없을 경우 자국 군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위협했다.

하지만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1천명의 병력을 추가로 파병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으로 병력증파를 둘러싼 긴장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나토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Kyuten (큐텐) featuring an elderly woman and text: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and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